

1. 동 포럼은 튀-우 주요 참석자의 인사말, 재건 협력을 위한 튀-우 TF 운영을 위한 양국 간 서명식,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차관의 PT, 튀 건설기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,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** 포럼 주요 참석자**

- (튀) 무역부 장관, 교통인프라부 장관, 건설협회장 및 건설기업
- (우) 부총리 겸 인프라개발부 장관, 인프라개발부 차관, 항만청, 철도기업 등

2. 주요 참석자 언급사항

- (건설협회장) 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35개국에서 12,000여개 (총5,020억불)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, 우크라이나에서는 300여개 (총100억불)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음. 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튀 기업들은 70여개의 인프라 프로젝트(약10억불) 수행하였음
 - 2022년8월 복구 사업 협력을 위한 TF 설립을 포함한 장관급 서명이 있었음. 오늘 행사를 계기로 TF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시작되었고, 건설협회(TCA)가 그 중심에 있을 것임
- (교통인프라부 장관) 튀르키예는 항공편으로 4시간이내 67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바, 교통, 물류, 무역회랑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음
 - 수에즈 운하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, 1,200km에 이르는 개발로 프로젝트 (이라크 Development Road)는 금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
 - 앙카라, 이스탄불 사이의 약2,500~3,000만명의 인구를 고려할 때, 앙카라-이스탄불 초고속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 시작, 보스포러스 제3교를 경유하는 게브제-차탈자 고속철도를 금년 내 건설 시작을 추진할 것임
 - 이외, 동지중해 연안 메르신, 아다나 지역에 각각 추가적인 항구 건설을 추진할 것임
- (무역부 장관) 전쟁 환경에서도 튀-우 양국 교역규모는 75억불에 이르며, 향후 105억불로 확대할 것임. 이를 위해 양국 간 논의 중인 FTA가 매우 중요하며, 이른 시일 내 양국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발효 될 것으로 기대함

- 오늘 우크라이나와의 재건 TF 관련 서명식은 큰 의미를 갖는 바,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튀 건설기업들은 제3국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. TF는 3개월마다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할 것임. 이른 시일 내 튀 기업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첫 번째 TF를 가동할 것임
- (우크라이나 부총리) 우크라이나는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.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잠재력과 물류 및 대외경제관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임. 우리에게는 흑해가 협력, 무역, 물류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음
- 중단기적으로는 △안전한 항해 환경 조성, △EU국가들과 항구, 국경선을 연결하는 도로, 철도 인프라 복원, △Danube 항구 개발, △국경선 지점의 시설 용량 확대, △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직접 물류 루트 조성 등이 중요하며, 우크라이나 재건의 우선순위는 주택, 국제 교통, 도로, 철도 등임
- 전후 복구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 바, 국제금융공사 (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)는 복구 과정에 있어 민간 참여 가능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마쳤음. 파트너의 투자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임
- 2024년에는 △주택, △교통시설, △도로, 철도 등에 중점을 둘 것임
- * 주택 :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eRecovery 프로그램으로 약9천만불에 대한 지원을 통해 36,000명의 지원자들이 개보수를 시행함. 금년에는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여 파괴된 주택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며 건물 잔해를 리사이클링하고 건설자재의 중단없는 공급에도 초점을 둘 것임
- 교통 : 튀르키예 영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. Azov-흑해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항구 복구, Danube 항구 클러스터 개발, 튀-우간 페리 연결 복원 등 추진
- 도로 : 3,900 km의 도로가 파손된 바, 세계은행에 따르면 복구에 264억불이 소요될 전망임. 교통인프라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 복구, 도로의 안전성 확보, EU 및 몰도바와의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등 추진
- 철도 : 지금까지 철도 인프라 손실은 43억불에 이룸. 단기적으로는 물류 시설 용량 개선이 필요하며, 우선적으로 교량, 변전소 등 수리를 위한 레일, 장비 등이 필요

3. 튀-우 재건 협력을 위한 TF 운영을 위한 양국간 서명식

- 무역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재건 협력 관련 양국간 TF운영에 대한 서명식을 가짐

4.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차관

- 2023년에는 다세대 주택, 용수 파이프라인, 난방 공급시설, 학교, 유치원,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 및 도로,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복구를 추진함
 - 이어서 금년에는 교통(국경선 도로, 철도, 항만, 교량 등 수출 관련 물류 시설), 다세대 가구를 포함한 주택, 주요 인프라(난방, 수도 공급, 위생, 수처리 시설 등)에 초점을 둘 것임
- 정부는 반부패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바, 각종 복구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. UNDP에서도 EIB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복구 시설들에 대해 모니터링 중임
- 전력망 보호 시설에 대한 복구가 시급한 바, 1주일간 정전은 90~150억불 규모의 피해를 야기함

5. 기타

- 이후,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항만청(USPA), Ukrainian Railways 기업 등에서 복구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고, 튀 측에서는 Calik Energy, Dogus, Kalyon, Kolin, Nurol, Onur, Yapi Merkezi 등 15개 건설회사*들이 기업 소개를 함

* Calik, Dogus, Dorce, GAP, Gulsan, Guris, Kalyon, Kolin, Meka, Metgun, Nurol, Onur, Yapi, Tekfen, Yildizlar

- 동 튀기업중 Dogus는 우크라이나에서 교량, 공항 등 20년 경험과 전쟁기간중 영국의 재정지원으로 3개의 교량을 복구하였다고 하고, Guris는 우크라이나에서의 10년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험, Onur는 우크라이나에서의 8,500km 도로 건설 경험, Yapi Merkezi는 우크라이나의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함